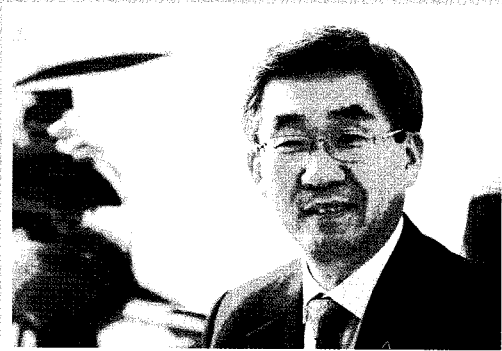


통합적 사고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하는

현대엔지니어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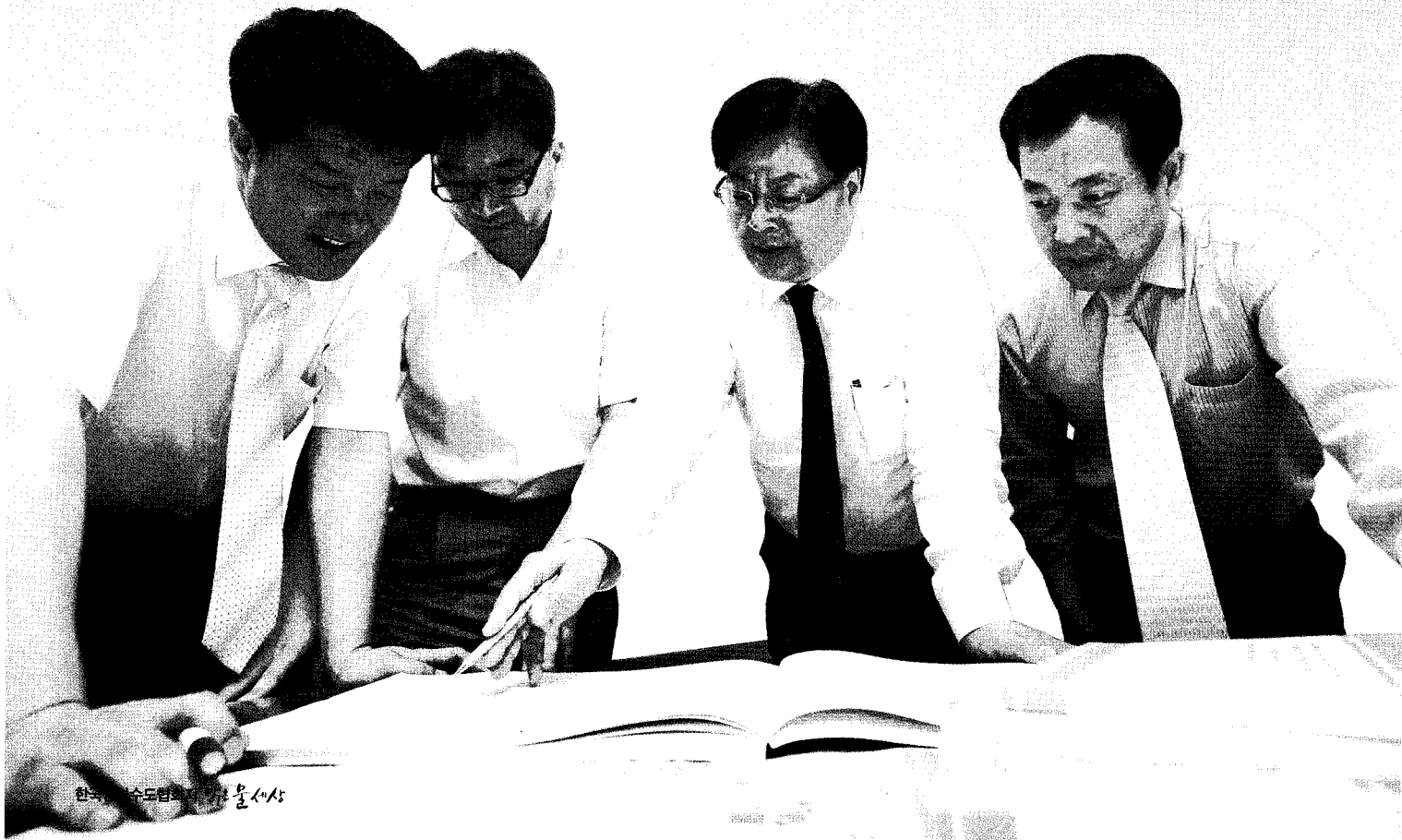


'기술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솔루션을 찾아내는 것' 현대엔지니어링이 말하는 엔지니어링에 대한 생각이다. 거대한 비즈니스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 보낸 지난 35년 간의 시간, 그것이 현대엔지니어링의 미래이다.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기술을 개발해 더 좋은 하수, 폐수, 정수처리장을 만든다면 우리 모두 지속적으로 깨끗한 물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자본을 활용해 각종 에너지와 사회 기반시설 등을 발전시켜 사람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사회의 기초를 만드는 것이 바로 엔지니어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74년에 창립한 현대엔지니어링은 현재까지 국내 업체 중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김동욱 대표이사는 작년에 미국 ENR 세계 엔지니어링 기업 순위 69위에 오르기도 했다는 소식을 들려주었다.

해마다 성장을 거듭해온 현대엔지니어링은 이제 어느 국내 엔지니어링 업체와 같이 한 분야에만 특화된 전문 기업의 형태가 아닌 화공 플랜트, 발전 플랜트, 산업 플랜트와 더불어 인프라, 환경, 건축을 아우르는 한편 세계 50여 개국에서 4,000여 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종합 엔지니어링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새로운 성장을 향한 다양한 변화

현대엔지니어링이 국내 업계 1위에 그치지 않고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해가는 것은 올해 들어 감행한 대대적인 조직 변화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과거에는 국내 여타 전문 용역사처럼 도로, 구조, 수자원, 상하수도, 환경 등 각각 독립적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어느 정도 부서 간에 벽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프로젝트 하나에 모두가 유기적으로 참여해 추진하는 통합적인 시스템으로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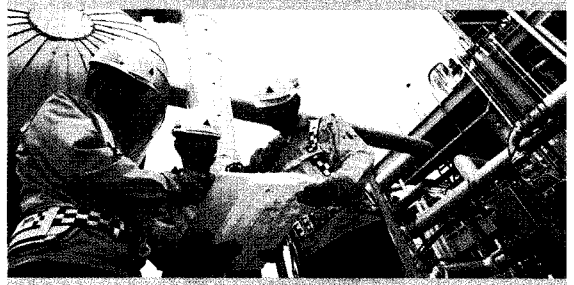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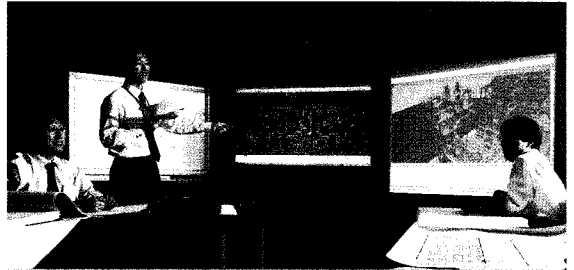
하나의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각 분야 전문가들이 신속하게 투입되어 일을 진행하는 모습은 과거 부서 중심의 운영 체제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으로, 프로젝트 중심의 통합 엔지니어링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인프라·환경사업본부 조용완 상무는 현대엔지니어링의 이런 변화가 ‘유역 통합 개발’ 방식으로 구체적인 실현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각 분야의 힘을 모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이러한 개발 방식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크게 주목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변화를 향한 도전 때문인지 지속적인 불경기 속에서도 현대엔지니어링은 작년 경영 실적에서 수주, 매출, 영업이익, 경상이익 모두 전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나아가 2009년에는 수주 3조 원, 매출 1조2,650억 원, 영업이익 1,640억 원 달성을 목표로 바쁜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무한한 창조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불황을 이기는 데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석유화학, 정유, 발전소, 송변전 등의 플랜트와 상하수도과 같은 SOC 분야로 사업 콘텐츠를 다양화한 것이 주효했고, 과거 E 중심에서 EP·CM으로 전환하면서 시장의 비중을 국내보다는 해외로 넓혀간 것 또한 불황 극복 요인으로 작용했다.

김동욱 대표이사는 이런 사업의 다양화 속에도 상하수도 분야만큼은 절대 소홀할 수 없는 사업임을 거듭 강조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보유한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주로 농도 유기성 하폐수 처리, 분리막을 이용한 상하수도 처리공법, 하수재 이용 공법 등 녹색성장을 중시하는 정부 시책에도 부응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현재는 저에너지로 담수를 만들어 언제든 필요한 만큼의 맑은 물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천안 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 사업 HANT 공법 및 배관 공사를 수행한 현대엔지니어링은 글로벌 기업의 위상에 맞게 해외에서도 사업 영역을 확대해가고 있다. 1986년 네팔의 ‘Sunsari Morang Irrigation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1993년에는 KOICA 무상 원조 사업을 통한 네팔 9개 도시 상수도 사업, 요르단 폐수처리 사업 타당성조사 실시 설계 및 감리 사업을 진행했다. 2003년에는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하수처리 사업, 2005년 베트남 호치민 푸덕 정수장 설계를 시행했다. 또한 현재 적도기니의 몽고모시 외 2개 도시 하수처리 및 정수장 EPC 사업, 오만 A’seeb의 하수처리 사업, 스리랑카의 풀로나루와 정수장 건설 사업 등을 한창 진행하고 있다.

“최근 환경 분야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현대엔지니어링은 그 중 물의 중요성을 가장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수도, 하수도 전 분야에 걸쳐 수처리 원천기술 개발을 통한 해외 시장의 단계적 확보와 전략적인 물 산업 통합 개발을 통해 글로벌 물 선진 기업으로의 도약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을 이끌어가는 김동욱 대표이사는 ‘사람’을 가장 중시한다. 이러한 ‘인화’의 분위기 속에서 자유로운 창조적 사고를 꽃피운다면 그 어떤 목표라도 그다지 먼 미래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이다. ☺